

자비실천하고 점수도 따고...

불교복지관 중학생 자원봉사 기회제공

○자원봉사 불교복지관

단체	연락처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6
김을종합사회복지관	(02)885-0161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2)817-8052
삼전종합사회복지관	(02)421-6077
육수종합사회복지관	(02)282-110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02)578-4104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02)719-4666

교육부는 오는 2000학년도부터 각 시·도의 고입선발고사를 연차적으로 폐지하고, 중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과 봉사활동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제 자원봉사는 대중 넘길수 없는 수험과목이 된 것이다.

교육부의 문을 두드려보자.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선착순 6명을 모집, 무의탁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말벗되어 드리기, 심부름하기, 청소 등을 한다. 또 2월 10일까지 매일 오후 5시 결식아동 밀반찬 배달봉사를 실시한다. 김을종합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

중·고교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아동놀이시설 청소, 도서관 책정리, 자동차 전면주차 계몽활동을 전개한다. 활동시간은 학생들과 협의 후 결정한다. 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유해환경조사, 금연캠페인 등을 할 중·고교생 40여명을 모집, 1월 21일 1~4시 관내에서 활동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를 방문하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각 지역에 소재한 자원봉사센터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는 각 지역 양로원과 연계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알려주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동네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단신

대불련 수행학교 회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한승희) 제8차 수행학교가 11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회향했다. '작은 변화에서 큰 깨달음으로'를 주제로 4박5일간 열린 수행학교에는 54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했다. △마음나누기 △화해언덕 △명심문(銘心文)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번 수행학교는 대학생 불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고 느끼는

◇지나해 여름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한성스님) 소속 중학생 50여명이 해명양로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관법(觀法)' 수행에 치중했다. 대불련은 지금까지 절·염불 등으로 수행학교를 운영해 왔다.

대불청지도자 연수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는 30·31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제38차 대의원총회 및 제16차 전국불교 청년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불청인의 자주적 사회참여'를 주제로 열리는 총회 및 지도자연수에는 전국 지구·지회장 등 1백50여명이 참여한다. 대의원총회에서는 99년도 대불청 예산 2억여원을 인준한다. (02)738-3385

"침체된 어린이법회 활성화"

어린이포교연합 초대회장 지원스님



"우수한 불교지도자를 양성, 침체되고 서울·경기지역 어린이법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30일 오후 4시 서울 은평구 삼보사에서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이하 어린이포교련)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지원스님(서울 삼보사 주지)은 포교에 대한 관심 확산 △각 지역별 교사 전문화 교육 실시 △교과과정 개발 및 교재 발간 △중단적 지원체제 확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해법의 실마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어린이포교에 힘을 쏟아온 지원스님은 구립 2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김대중) 주관으로 열린 '의장상 수여식'에서 불교문화 포교활성화로 대통령상을 수상해 더욱 빛났다.

이와같이 어린이포교에 힘을 쏟아온 지원스님은 구립 2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김대중) 주관으로 열린 '의장상 수여식'에서 불교문화 포교활성화로 대통령상을 수상해 더욱 빛났다.

이와같이 어린이포교에 힘을 쏟아온 지원스님은 구립 2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김대중) 주관으로 열린 '의장상 수여식'에서 불교문화 포교활성화로 대통령상을 수상해 더욱 빛났다.

30~31일 어린이지도자 연수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는 30~31일 서울 은평구 삼보사에서 제1회 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1세기를 위한 불교아동교육의 반성과 방향 모색(황학현원장·불교교육연

구원) △법회를 걷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임숙희교수·경상대) △어린이 종교교육 어디까지 가능한가(민영순교수·숙명여대) △왜 어린이법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법전스님·지장사 주지) 등 총 13개 강좌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집현모색(황학현원장·불교교육연 수 27일까지. (02)725-2201~2

고입선발때 활동 성적 반영 노인 말벗 돼주기·청소등 다양 2월 중순까지 신청자 모집

이에 따라 중학생들이 올 겨울방학 자원봉사활동의 절호 찬스로 이어 한다는 지적이다. 학기중에 심적·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무적으로 규정한 자원봉사 시간 3년간 15~20시간. 그러나 막상 자원봉사를 하려고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

교육 후 장애체험, 지역내 봉사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노인 목욕시켜드리기 등을 한다. 1월말 15명을 모집, 2월중 15시간 활동할 예정이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선착순 20명을 모집, 복지관 환경미화·홍보·전산입력 등을 비롯해 노인 말벗되어 드리기 등을 한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1월까지

컴퓨터·한문 무료로 배우세요

서울시 각구청 강좌 개설 방학을 맞은 초등학교생들을 위해 각 구청이 한문과 컴퓨터 무료강좌를 마련했다. 성북구는 초등학교생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0일간 무료 한문교실을 운영한다. 한문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02)920-3490 강북구도 21일부터 수유1동 강북노인회관에서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기초상용한자 등을 가르치는 무료한문교실을 운영한다. (02)989-5243 동작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월28일까지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 등에서 영어, 수학을 무료로 가르쳐준다.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02)20-1310 동대문구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1일부터 29일까지 구청 전산실에서 무료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 (02)920-4315

명사들의 건강비결 ②



조말풍 <불일회장>

법원사 서울불일회 회장이며 성균관대 명예교수인 달공 조홍식 거사(79세)는 "건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자기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조거사는 30년 넘게 매일 밤 9시면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면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5시부터 1시간 동안 요가를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 왔다. 심대에 묘향산 법당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래 평생 동안 수행자적 삶을 살아온 조거사는 불자로서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바로 건강유지의 비결임을 보여준다. 젊음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오랫동안 불일회를 이끌어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재가선지식으로서 인정받는 이유는 생활수행 덕분이다. 조거사는 성균관대 정년후 고향인 하남시 춘곡동 농장에서 불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1천여평에 자급자족을 위한 채소, 콩, 고구마, 고추 등 밭작물을 자연농법으로 두공해 재배한다. 농약과 화학

새벽 예불후 요가운동 30년 농사 지으며 연기법 생활화

비료는 전혀 쓰지 않고, 자라는 만큼만 거둬서 먹는 자연농법으로 육신과 정신의 건강을 챙긴다. 농사지는 틈틈이 글도 쓰고, 수행도 하고, 책도 읽고, 서울 법원사 법회도 빠짐없이 참석해 불심을 다진다. (ejlee@buddhapia.com)

휴에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고 확신하는 조거사는 농작물 사이에 자라는 잡풀들도 그대로 둔다. 여름 장마철에는 이 잡풀들이 땅을 지탱해 주고, 풀이 죽으면 그대로 땅의 거름이 되는 순리를 따르기 위해서다. 조거사는 "자연농법은 연기법에 따른 농작물 재배법입니다. 인간도 자연도 모두 이 위대한 연기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한다면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농사가 다 끝난 요즘 조거사는 참선과 산책, 가벼운 등산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일흔아홉이라는 나이에도 몸의 부자유를 모르고 걸림없이 생활하는 조거사는 불자들에게 말한다. "잠시라도 휴를 밟으며,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라"고. 이은자 기자



◇큰사람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조별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신심있는 불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선우 큰사람캠프 성황 람캠프'에는 중·고교생 70여명과 선우입원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캠프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을 큰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선택-나는 큰사람과 <반아심경>, '예불문', '심모장구다라니' 등을 암송하는 △3경 봉독회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청소년들의 신심과 보살심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99년 선우 큰사



◇지강학교에 참석한 고3학생들이 양주별산탈춤을 배우고 있다.

죽음체험 등 이색수련 '눈길'

전주 송광사 청소년 자강학교 삼복을 입은 한 청소년이 관을 향해 절을 하고 관속에 들어가자 6명이 관을 메고 선방을 들며 경전을 독송한다. 졸업을 앞둔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색적인 동계수련대회가 열렸다. 7일부터 10일까지 완주 송광사에서 열린 '전북지역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불자들을 위한 동계 자강학교'가 바로 그것. 5회째를 맞는 이번 자강학교에는 전주 익산 등 전북 5개지역 고3학생 4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들이 실시한 프로그램은 윤희희식. 이 프로그램은 작

죽음체험 등 이색수련 '눈길' 죽은자의 입장 되어 삶에 대한 반성과 죽음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이번 자강학교에서는 6~7명이 선재동자가 되어 미리 정해진 미륵·서방정도 등을 찾아가는 '불국정도를 찾아서', 배를 타고 가다 망망대해에서 난파됐을 때의 자신의 처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편지로 쓰는 '난파선', 결식아동들의 입장이 되보는 '오후불식' 등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참선, 탈춤배우기, 선채초, 촛국 발표회 등 모든 프로그램이 참회 체험 실천위주로 진행됐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016 PCS 최저가격·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싸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한화 G2-F21

절전기능
-세계최초의 광센서 착용
깨끗한 통화
자동 검색 기능
음성/문자 메시지 기능
17종의 다양한 전화 벨소리
유해 전자파 방지 도료
(인체에 미치는 피해 제거)
전자 계산기 기능
자기번호 송출 기능
비상전화 다이얼 기능

크 기 125x44x26mm
무 게 144g (소형 배터리 사용)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8분
배터리L 300분

사은 가격 50,000원 (가입비반)

한화 F31

현PCS중 최소형
한화의 새로운 PCS-F31
Sporty하고 세련된 디자인
초대형 화면 표시창
초경량 PCS
예절모드
일정관리

크 기 107x43x20mm
무 게 77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0분
배터리L 210분

사은가격 75,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애니콜

SMS서비스
이어미이크 폰 접속기능
음성 다이얼 기능
자기지역 번호 자동 다이얼
예약 통화 기능
알람 기능

크 기 114x50x22mm
무 게 105g
연속통화 최대 240분/75시간
통화 대기

사은가격 20,000원 (가입비분납)

LGP-6200F

작고 단단한 싸이언
자동응답기능
독특한 전화벨소리
길어진 배터리 사용시간
말뭉개는 음성인식은 기본
자동조명기능
지역번호 자동다이얼

크 기 107x45x25mm
무 게 89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M 130~140분
배터리L 260~300분

사은 가격 60,000원 (가입비분납)

삼성 SPH-4700

최대 420분 연속통화/125시간
통화대기
메너기능
한글/영문 SMS서비스 기능
바로 전화걸기
전자계산기/스톱워치
대화형 문자정보서비스 지원

크 기 116x45x23mm
무 게 105g
연속통화 배터리M 240분
배터리L 420분

사은 가격 65,000원 (가입비분납)

요금 납부 방법은
● 빈도시 신용카드로 결제 해야 됩니다. ● 선불카드 결제원 증점 증명 (부가서비스 자동연결) (결제 무리요금 없음)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02-737-0697 / 737-0698,0696
은행
국민은행 006-01-0783-279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8977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